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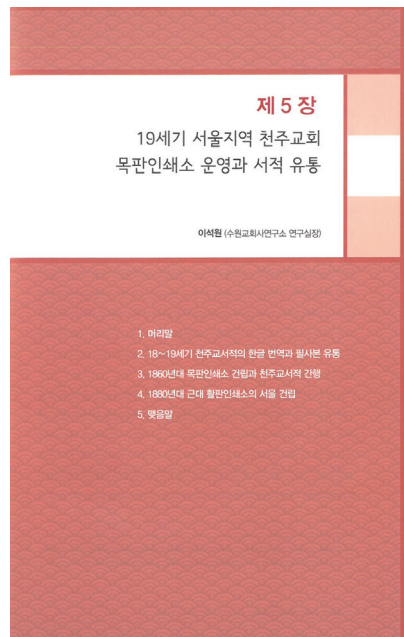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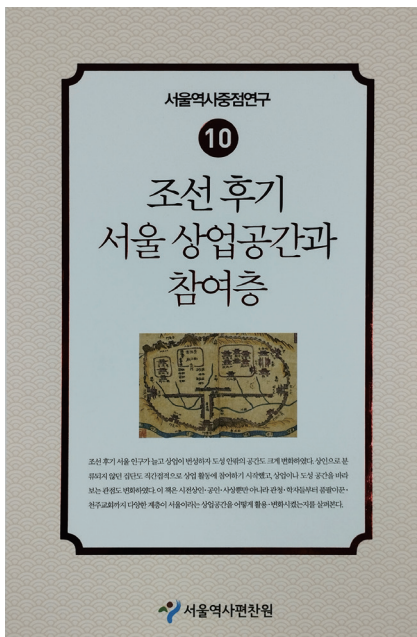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1)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다른 6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역사중점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 3월 31일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서울역사중점연구 10)이란 연구서를 간행했습니다. 이 책은 7명의 공저로 서울역사편찬원에서 간행되었는데, 필자가 집필한 글은 제5장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23~265쪽)입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천주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천주교서적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 서울지역 목판인쇄소 건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교회 측과 관변 측 자료를 활용하여 목판인쇄소가 건립된 지역과 인쇄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천주교회가 재건되는 시기 [1870~80년대]에 목판인쇄소와 활판인쇄소가 병존하다가 조불조약 체결[1886년] 이후 서울에 활판인쇄소가 건립되는 과정도 정리했습니다.(위의 글, 1. 머리말, 227쪽)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2021. 3. 31 간행) 표지와 필자 글의 제목과 목차

이후 필자는 ‘교회서적의 번역과 간행’이란 주제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위의 내용 [특히 ‘목판인쇄소’ 관련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른 주제로 연구를 발표할 때 의도치 않게 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간행된 글에 새롭게 수정·보완할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를 일부 연구자만 아니라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1년에 간행된 연구 내용[3~4장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상교우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전체 내용의 요약

2021년에 간행된 글의 전체 내용은 ‘5장 맺음말’(262~264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와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밑줄로 표시)

초창기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성교(聖敎)이자 정학(正學)인 천주교를 만민(萬民)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여 천주교를 전파했고, 새로 신자가 된 일반 민인들, 특히 여성과 하층민의 요구에 따라 천주교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례와 전교에 사용하였다.

북경교구가 파견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5년 입국한 이후 사제-신자로 구성된 교회조직이 완비되었다. 1명의 사제와 소수의 지식인 신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을 직접 교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서적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글 번역 서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1831년 조선대목구가 북경교구에서 분리·독립하고 파리외방전교회가 조선대목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정부의 천주교 금압정책과 언어 장벽 등으로 프랑스의 선교사제들의 전교 활동은 제약이 많았다. 따라서 선교사제들은 천주교서적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역·저술하여 유포시키는 ‘문서 전교’ 방식을 선택했으며, 실제로 교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이 지속되는 시기에 천주교서적의 필사는 서적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대부분 신자들이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천주교서적의 필사는 한글본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교세의 확장과 함께 천주교서적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필사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였고 필사 방식으로는 수요를 쫓아가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천주교서적의 인쇄·배포가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는 1856년 ‘조선대목구 성직자회의(시노드)’를 개최하고 사목서한(「장주교윤시제우서」)을 공포함으로써 대목구의 사목지침을 확립했다.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도문과 교리서를 반드시 익혀야 했고, 아울러 천주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천주교서적의 번역과 유포가 필수적이었다. 베르뇌 주교는 대목구장의 감수·인준 체제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책들은 소각하면서 천주교서적의 정본(定本)을 확립했고, 다량의 서적을 싼값에 만들어 널리 유포시킬 수 있는 목판인쇄소를 건립했다.

기존의 연구성과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861년에 처음 목판인쇄소가 건립되어 교리서(『성교요리문답』)가 간행되었고, 순차적으로 기도서(『천주성교공과』)와 장례예식 지침서(『천주성교예규』), 성사 관련 서적들(『신명초행』 등)이 간행되었다. 1865년에는 세 개의 인쇄소에서 10종 이상이 책이 간행되었고, 수만 권의 책이 신자들에게 판매·배포되었다. 세 개의 인쇄소 중 두 개의 위치는 석정동(현재 서울 중구 산림동 일대)과 창동(현재 서울 중구 남창동)이었고, 인쇄소 담당자는 최형(베드로)과 임치화(요셉)였다. 배포된 지역에 대해 서울 자암(현재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과 창동, 경상도 외에는 명확한 자료가 없지만, 황해도·평안도 지역에 비신자들이 교리서를 필사해서 공공연하게 판매했을 만큼 천주교서적의 수요가 많았고, 전국 각지의 신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것이다.

1866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로 선교사제와 신자들이 붙잡혀 처형을 당했는데, 목판인쇄소를 운영하던 최형과 전장운(요한)[박해 직전에 임치화로부터 인쇄소를 인수함도 잡혀 참수형을 받았다. 아울러 인쇄소에 있던 목판과 천주교서적들은 압수되어 소각되었고, 목판인쇄소는 폐지되었다.

1866년 교육(敎獄, 천주교 박해) 이후 파괴된 조선천주교회는 1876년 선교사제의 재입국을 계기로 재건되었으며, 리델 주교와 블랑 주교 등 대목구장들은 인쇄소 건립과 천주교서적 간행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1878년 리델 주교의 체포로 그가 준비하던 인쇄소는 폐쇄되었지만, 블랑 주교는 조선과 일본에 인쇄소를 건립하여 각각 목판본과 근대식 활판본을 간행하여 신자들에게 배포했다. 조선에서는 최우정의 인쇄소(현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특실)가,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요코하마에서 이전]의 ‘성서활판소’[오우라 천주당 안의 라틴신학교 건물 지하 1층]가 천주교서적을 간행했다. 두 인쇄소를 통해 1860년대 베르뇌 주교의 감준을 받았던 서적들이 모두 복간되었고, 새롭게 번역되어 대목구장의 감준을 받은 서적들도 간행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대목구의 ‘문서선교’ 방침은 확실하게 관철되었고 천주교회의 정착과 교세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목판인쇄소는 폐지되고 근대식 활판인쇄소가 나가사키에서 서울로 이전되었다. 이후 활판인쇄소가 한국천주교회의 중심지인 명동에 자리잡게 되었고 현재 ‘가톨릭출판사’의 전신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목판인쇄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고 활판인쇄소로 대체되었지만, 최초의 한국천주교 인쇄소로서 천주교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개항기 활판인쇄소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지는 천주교 인쇄소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간행된 글은 서울역사편찬원의 ‘서울역사중점연구’ 서책의 체제를 따랐기 때문에 별도의 ‘참고문헌’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독자분들이 관련된 자료와 논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다음 호에 관련 참고문헌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교회사학』(3월, 9월 간행),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지’ 판정 (11월 1일)

2004년 창간부터 『교회사학』은 한국사 및 한국교회사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 일반 연구논문)이자 교회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연구 입문자들을 위한 길잡이(관련 자료의 번역·정리 소개 및 보고서, 서평)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원교회사연구소는 수원교구사 및 한국천주교회사에 기여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일반 (역사)학계에도 교회사의 연구업적을 소개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학』 창간호부터 ‘한국연구재단’에 ‘학술등재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연구소는 2007년 6월 29일 한국연구재단에 『교회사학』의 ‘신규 학술지평가’ 신청을 했고, 2008년 1월 3일 공문을 통해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등재지’로 승격 받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내용과 체제 면에서 충실한 학술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사학』은 2012년 12월 6일자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회사학』 창간호부터 21호까지 (2004~2022년)

『교회사학』이 계속해서 학술등재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학술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요건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에 맞춰 본 연구소는 『교회사학』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여 2016년 8월 3일과 2019년 10월 31일,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유지’를 판정받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매년 1회 발간(12월)에서 매년 2회(3월, 9월) 발간으로 간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11월 1일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유지’를 판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본 연구소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본 연구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회사의 전문학술지로서 『교회사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소의 소장신부,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2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